유치원 교육비 현황과 표준유아교육비의 제안

김은설 연구위원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인건비, 교육활동비, 시설·설비비,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타 경비로 정의된다. 또한 이 개념은 현실의 비용 수준을 고려하되 규범적 입장에서 적정 교육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유치원의 평균 교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살펴보았고, 표준유치원모형에 의거한 공·사립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현실비용(교육비 평균 현황)과 산출비용(표준유아교육비) 간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는 국가 유아교육 예산 수립,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액 산정 등 국가 수준의 재정 계획 수립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별 유치원의 교육비 수준을 결정하고 학부모가 교육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잣대로서도 실용적 역할을 할 수 있다.

1. 서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 중 하나는 유치원 교육비가 천정부지라는 비판의 목소리이다. 유아기부터 교육비가 높고 평판이 좋은 유치원을 줄을 세워서라도 보내고자하는 현상을 우리나라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는 긍정적 사례로 여길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 통합과 조화로운 성장 질서를 위협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며 교육비 수준을 높여 가계 부담을 늘이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치원 교육비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방법과 시점에 따라 표준유아교육비는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어 혼동이 있는 바, 산출을 시작하기 전에 공립

이나 사립 중 어디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이 되는 교육시간이나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둘 것인지, 교원의 구성 기준은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은 선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실제 유치원의 평균 교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며, 학급별 유아 수와 교사 수 등을 규범적으로 정리한 표준 유치원모형에 의거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비용과 표준비용 간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산출 과정에서 도출된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정은 국가 유아교육 예산 수립, 누리과정 유아교육비 지원액 산정 등 국가 수준의 재정 계획 수립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별 유치원의 교육비 수준을 결정하고 학부모가 교육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잣대로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2. 정보공시에 나타난 유치원 교육비 현황

2012년 9월부터 정부는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유치원의 재정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관한 기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 알리미' 로 이름 붙여진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http://e-childschoolinfo.mest.go.kr/)는 유치원 규칙, 시설 등 기본 현황, 교원 및 유아 관련 사항, 교육과정, 원비 및 예산, 급식 등 건강·보건위생 관련 사항, 시정명령 여부, 그 외 기관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시 사이트의 내용을 근거로 현재 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교육비 현황 확인을 위한 자료 조사 기간에(2013년 5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탑재된 유치원 재정 관련 정보는 2013년 세입·세출 관련 예산으로, 결산 자료가 아니어서 정확한 현황으로 보기에는 오차가 있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각 개별 유치원이 직접 제출한 정보이므로 활용하기에 비교적 정확한 자료로 간주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두 가지 예산 자료 중 세입보다는 세출 예산이 교육비 지출 항목과 규모를 확인하는 데 더 유용하므로 결국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전국 유치원의 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비 현황 분석을 위해 표집한 유치원은 공립 242개, 사립 562개 등 총 804개원으로, 유치원 규모, 소재한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무선 표집하였다. 공립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모(母) 기관인 초등학교 재정을 제시하고 있어 연구의 자료로 활용이 어려웠으므로, 단설유치원 위주로 교육비 현황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병설유치원 중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기도 하였다. 인건비 등 교육비의 구성 방식이 사립과 공립은 차이를 보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각각 교육비를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유치원의 원아 수 규모 또한 교육비 산정을 다르게 만드는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치원 규모를 고려하여 60명 이하를 소규모, 61명 이상 120명 이하를 중규모, 121명 이상을 대규모 유치원

으로 규정하고 선정한 바, 이는 일반적으로 한 학급을 20명 정도로 보았을 때[1] 연령별 1개 총 3개 학급으로 유치원이 구성된 경우 소규모로, 연령별 2개 학급, 총 6개 학급까지를 중규모로 본 결과이다.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으로, 읍·면은 군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을 선택하였다. 또한 결과적으로 설립 유형과 지역을 고려한 소규모 280개원, 중규모 343개원, 대규모 274개원 등 총 804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비 정보를 확보하였다.

가. 공립유치원 교육비

정보공시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연간 3,042.6천원으로 추정되고 월간 비용으로 보면 1인당 253.6천원으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직원 평균 연봉에 대한 아동 1인당 표준분담금 3,253천원을 더하면[2] 1인당 연간 교육비가 될 것이므로 계산하면, 약 6,295.6천원이 되고 이를 월간으로 보면 524.6천원으로 산출된다.

유치원 규모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규모가 작을수록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높아져 최대 1,458.1천원 차이가 났으며, 지역 유형별로 차이는 없었다. 지역 간에는 특히 교육복지비용(급식관리, 보건관리, 학생복지)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에 위치한 중규모·대규모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복지비용이 586.6천원에서 838.8천원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보건이나 급식과 관련한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추후 필요하다.

〈표 1〉 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교육비

단위: 천원

지역	유치원 규모	인적 자원 운용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기본 교육	선택적 교육	교육활동 지원	일반 운영비	학교시설 확충	재무 활동비	계 (연간)	1개월 기준
대도시	대	29.7	838.8	443.4	833.9	211.0	508.2	8.2	5.4	2,878.7	239.9
	중	393.5	586.6	512.5	1,291.4	314.0	469.5	54.2	9.5	3,631.2	302.6
	소	54.3	692.1	553.4	1,884.9	589.1	539.1	13.7	13.7	4,336.8	361.4
중소도시	대	27.6	1,266.0	432.4	457.0	240.3	712.6	37.6	8.1	3,181.5	265.1
	중	34.3	1,287.4	418.1	627.3	239.6	868.6	1.4	3.6	3,480.3	290.0
	소		289.2	708.9	466.9	46.1	268.8			1,781.0	148.4
읍면	대	22.8	1,155.6	374.8	338.0	212.6	564.2	17.9	7.5	2,693.5	224.5
	중	66.4	1,148.6	428.4	518.8	303.3	870.9	36.7	8.4	3,381.5	281.9
	소		369.4	450.3	401.8	143.9	641.1			2,019.0	168.3
전체										3,042.6	253.6
※ 표준 공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포함 시[1]										6,295.6	524.6

주: 1) 표준 교사 인건비 산출방법은 김은설 외(2013) 보고서의 4장 2절을 참고하기 바람.

1)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 김은설·문무경·박진아·이영미·김해인(2013).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공립유치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는 국가학비 지원액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0원~15,000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과정 비용은 0원~68,620원 사이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기본과정인 오전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에서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이 대체로 만원 이상의 비용을 교육비로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방과후과정 교육비에 있어서는 대도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았다.

〈표 2〉에서 보면, 학교 회계 합산으로 정확한 수치 산출이 어려웠던 읍면 지역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유치원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비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급식비의 경우는 대도시 내에서 비교할 때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커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학부모 부담 비용(교육과정)

단위: 원/월

지역	유치원 규모	입학+원복	간식비	급식비	교재/재료비	현장 학습비	기타	총비용	국가 지원비 제외 실부담
대도시	대	47,905	8,969	42,795	16,258	6,705	11,963	56,286	0
	중	28,733	9,105	44,645	8,168	10,066	16,706	56,478	0
	소	24,047	7,859	45,341	10,401	9,321	26,116	61,383	1,383
중소도시	대		12,867	46,444	20,631	11,304	16,770	63,544	3,544
	중	44,293	11,873	43,639	24,941	12,837	12,775	64,164	4,164
	소		8,964	46,951	16,095	12,604	19,000	65,212	5,212
읍면	대	47,437	16,200	47,190	12,867	10,224		60,430	430
	중		18,540	42,909	28,128	18,538	7,600	63,036	3,036
	소	33,556	13,635	44,971	22,198	12,793	20,730	49,878	0
전체			12,001	44,987	17,743	11,599	16,457	60,046	46

〈표 3〉 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학부모 부담 비용(방과후과정)

단위: 원/월

지역	유치원 규모	수업료	간식비	교재/재료비	현장 학습비	기타	총비용	국가 지원비 제외 실부담
대도시	대	78,906	23,885	17,388	6,605	31,774	77,316	27,316
	중	86,988	27,306	17,754	9,144	35,904	118,620	68,620
	소	88,521	31,352	17,344	5,997	37,027	109,957	59,957
중소도시	대	51,771	29,121	12,707	8,586	22,569	60,547	10,540
	중	38,372	28,065	13,928	8,103	30,288	62,658	12,658
	소	41,307	30,769	15,059	9,712	31,681	64,062	14,062
읍면	대		28,383	16,933	8,370	20,179	61,290	11,290
	중	20,000	27,700	12,905	3,000	23,120	45,271	0
	소	19,834	33,279	16,980	8,000	31,909	47,435	0
전체		53,212	28,873	15,666	7,502	29,383	71,906	21,906

나. 사립유치원 교육비

사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교육비로 평균 연간 5,817.4천원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월간으로 계산하면 유아 1인당 월 484.8천원으로 평균 교육비가 산출된다. 유치원 규모별로 비교해보면 지역 상관없이 소규모 유치원에서의 인건비 수준이 확연히 높았다. 이는 소규모 유치원의 세출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관이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비교에 의하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한하여 사립유치원이 대규모 시설일 때 1인당 비용이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이고 관리운영비도 적절한 정도를 나타내주었다. 읍면 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유치원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운영 지원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4 참조).

제시된 〈표 5〉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부모가

〈표 4〉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교육비용

단위: 천원

지역	유치원 규모	인건비	관리 운영비	학교 재무활동	학교운영 지원비	계 (연간)	1개월 기준
대도시	대	2,541.7	1,363.9	269.7	1,417.1	5,592.4	466.0
	중	2,874.3	1,212.3	268.5	1,554.3	5,909.0	492.4
	소	3,530.8	1,456.5	181.0	1,677.2	6,845.0	570.4
중소 도시	대	2,335.2	1,285.1	296.4	1,258.0	5,174.7	431.2
	중	2,701.1	1,372.0	257.9	1,975.4	6,306.5	525.5
	소	3,031.2	1,167.2	407.4	2,075.3	6,681.0	556.8
읍면	대	2,306.9	1,244.2	280.8	1,337.3	5,169.2	430.8
	중	2,433.0	1,194.5	251.3	1,210.5	5,089.3	424.1
	소	2,966.9	1,424.2	213.4	984.5	5,589.1	465.8
전체		2,746.8	1,302.2	269.6	1,498.8	5,817.4	484.8

〈표 5〉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학부모 부담비용(교육과정)

단위: 원/월

지역	유치원 규모	입학+원복	수업료	간식비	급식비	교재/ 재료비	차량 운영비	현장 학습비	기타	총비용	국가 지원비 제외 실부담
대도시	대	173,640	272,362	17,532	45,149	33,577	25,306	18,545	35,235	375,798	125,798
	중	167,565	259,639	16,930	45,085	29,920	21,382	19,722	35,471	361,186	141,186
	소	168,744	241,519	12,800	43,381	33,014	21,273	13,666	29,091	334,371	114,371
중소 도시	대	163,364	255,947	13,111	49,493	39,829	24,453	15,858	32,404	374,953	154,953
	중	140,976	239,897	11,539	43,016	35,102	16,104	18,089	36,036	341,203	121,203
	소	134,222	229,394	16,222	47,661	34,984	18,803	16,366	26,355	325,081	105,081
읍면	대	145,630	244,191	11,977	38,257	25,020	20,500	11,312	32,625	322,085	102,085
	중	131,449	224,306	14,553	32,120	25,471	19,582	12,936	39,442	286,389	66,389
	소	120,310	214,630	13,760	33,169	22,001	14,126	12,059	31,167	259,792	39,792
전체		149,544	242,432	14,269	41,926	30,991	20,170	15,395	33,092	331,206	111,206

〈표 6〉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학부모 부담비용(방과후과정)

단위: 원/월

지역	유치원 규모	수업료	간식비	교재/재료비	차량 운영비	현장 학습비	기타	총비용	국가 지원비 제외 실부담
대도시	대	85,242	22,147	18,682	14,894	24,000	49,939	120,905	50,905
	중	84,649	18,913	18,078	13,617	10,000	41,433	110,745	40,745
	소	91,658	20,667	16,938	12,500		53,068	119,133	49,133
중소도시	대	83,081	19,878	17,070	12,736	13,500	53,874	121,967	51,967
	중	74,822	17,061	17,018	15,000	5,000	35,449	107,052	37,052
	소	81,237	17,957	14,881	18,181	10,000	35,446	112,239	42,239
읍면	대	67,844	16,587	12,800	15,000		40,351	94,816	24,816
	중	71,066	16,294	17,006	19,250		38,768	98,804	28,804
	소	65,575	15,589	39,500	11,750		35,167	91,695	21,695
전체		78,353	18,344	19,108	14,770		42,611	108,595	38,595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월 331,2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의 유아 1인당 월 교육비가 484,800원이라고 하면 차액인 153,600원은 지자체 등 기타 비용 지원으로 충당되는 듯이 보이고, 부모 부담액 중 220,000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학비이므로 실제 부모는 111,200원만을 교육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과 무관하게 유치원의 규모가 큰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및 급식비, 입학/원복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과정 교육비 지원이 220,000원임을 감안하면, 읍면지역은 6만원~10만원 정도를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약 10만~15.5만원까지 추가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도시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있고 급식비도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기본과정에 대한 부모부담 경비가 차이를 보인다.

〈표 6〉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비교하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읍면지역은 유치원의 규모를 막론하고 10만원 미만 수준임에 반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정부의 방과후 교육비 지원액 70,000원 보다 최대 5.1만원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부모 부담 비용 차이는 수업료 및 현장학습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 표준유아교육비

가. 정의

2012년 3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간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부 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표준

유아교육비의 산정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①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②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③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 구성된다. 이 정의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누리과정이라는 기본 교육과정에 한정된 비용이라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방과후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운영경비로, 초기 설치비,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법에 제시된 개념을 우선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준유아교육비의 의미를 따라, 표준유아교육비란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인건비, 교육활동비, 시설·설비비,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타 경비로 정의되며, 현실의 비용 수준을 고려하되 규범적 입장에서 적정 교육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라 하겠다.

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면서 보다 '표준'의 의미에 적절할 수 있는 방식을 접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즉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산출 과정에서는 보다 이상적인 모델인 표준유치원 모형과 교육공무원 호봉표를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반면 공통운영비 산출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실제 운영비 조사 결과와 비정규직 인건비 기본 모형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공립과 사립 각각 계산하였다.[3)]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교육비는 국가 전체 교육비 규모로 약 2조 8,034억원으로 산출되었고 이 중 공립이 30%정도인 8,179억원이며 나머지 1조 9,855억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총액이다. 이는 2013년 국가 유아교육 예산 2조 6천억원과 비슷한 규모를 보여준다. 국가 예산에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영역은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이므로 산출된 전체 표준유아교육비 규모보다는 적은 것이 당연하다. 또한 2012년 발표된 표준유아교육비 2조 7,536억원에 비하면 500억원 정도가 높아진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유아 1인당 표준교육비는 본 연구의 방법에 의하면, 연간 5,245천원, 월평균 437천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공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월 466천원(연간 5,596천원), 사립유치원은 월 426천(연간 5,114천원)으로 유아 1인당 월 4만원 차이를 보인다. 연간으로 보면 공립과 사립 간 표준교육비에서는 48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표준모형에 의한 엄격한 규범적 방식에 의한 것으로, 실제 유아수를 기준으로 제시했던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3세는 15명, 4, 5세는 20명씩 한 학급(학급 당 교사 1명 기준)을 이룬다는 표준모형에 근거했을 때의 비용이다(표 7 참조). 표준 모형에 기반하여 산출된 비용은 결과적으로 현실과 비교했을 때 학급당 원아 수가 적고 교사 수는 많아 인건비 부담이 실제보다는 과추정될 수 있다. 이는

3)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체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본 글의 원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김은설 외(2013). 앞의 책.

〈표 7〉 표준유치원모형의 학급 구성과 및 원아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
학급구성	3세	0	0	1	1	1	2	2	2	3	3	…
	4세	0	1	1	1	2	2	2	3	3	3	…
	5세	1	1	1	2	2	2	3	3	3	4	…
원아 수	3세	0	0	15	15	15	30	30	30	45	45	…
	4세	0	20	20	20	40	40	40	60	60	60	…
	5세	20	20	20	40	40	40	60	60	60	80	…
	계	20	40	55	75	95	110	130	150	165	185	…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실과 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사림유치원의 학급당 아동 수와 교사 수가 표준 모형과 상당이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표준교육비를 구성하는 성분별로 비용을 공·사립간 비교해보면, 인건비에서는 공립유치원에서 훨씬 높고(유아 1인 월 분담비 공립 271천원, 사립 220천원), 교육활동경비는 공립이 조금 높은 편인 반면(유아 1인당 월 분담비 공립 79천원, 사립 61천원), 학교 운영비인 공통운영경비는 사립이 공립보다 높아(1인 월 분담비 공립 113천원, 사립 126천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본 운영비가 공립보다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표 8〉은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요소 즉, 표준

〈표 8〉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준 및 비용

단위: 천원

항목/구분			산출기준	설립 유형	원아 1인당 산출 비용	
					연간 교육비	월 평균
표준 유아 교육비	표준 인건비	교원 인건비	- 2012년 유/초/중/고 교원의 공무원 봉급표 중 24호봉 급여	공립	3,253	271
			- 2012년 유/초/중/고 교원의 공무원 봉급표 중 13호봉 급여	사립	2,640	220
		직원 인건비	- 2012년 행정직 8급 5호봉	공립	32	3
				사립	226	19
	표준 교육 활동 경비	교구비	- 시·도 교육청 교구·설비기준 참조 - 2013년 3-5세 누리과정 지도서에 근거하여 소요물량 산출 후 시장가격 조사 기준	공립	953	79
		재료비				
		설비비	- 2012년 연구 결과의 설비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	사립	731	61
	표준 공통 운영비	대규모 유치원 중규모 유치원 소규모 유치원	- 2012년 세출 예산서의 인적자원 운용, 학생복지, 교육활동 지원, 학교일반운영 비용을 이용 규모별 산출	공립	1,357	113
		대규모 유치원 중규모 유치원 소규모 유치원	- 2012년 세출 예산서의 관리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재무활동비를 기준으로 규모별 산출 - 비정규직(학습보조, 행정보조) 인건비 산출	사립	1,517	126
	총액			공립	5,596	466
				사립	5,114	426
				계	5,245	437

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비 각각을 적용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한 것이다. 교원과 직원의 인건비는 표준유치원 모형에 의하여 현행 호봉을 적용하여 산출되었고, 교육활동경비는 누리과정 지도서 분석에 대한 분석과 시장조사 가격 조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통운영비는 표준학교모형에 의한 비정규직 인건비 및 공·사립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다.

4. 결론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표준비용이 현실비용보다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보공시 자료에서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524.6천원이고 사립은 484.8천원으로 4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표준유아교육비는 공립 466천원, 사립 426천원으로 역시 두 유형 간 4만원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실비용이 표준비용보다 설립유형별로 각각 5만 8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의의 여지가 있다. 즉 표준유아교육비가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낮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의 유치원이 교육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는 학급별 적정 유아 수와 교사 수, 교직원 수를 이상적으로 맞춘 표준유치원모형에 의한 것이므로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실제 비용을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와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교육활동경비 중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비용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매우 높게 지출되어 공통운영경비를 높이는 결과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항목의 상승으로 인해 공립유치원의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의 경우는 이와 달리 교육활동경비가 낮으므로 표준공통운영경비를 지역별로 제시한다면 또 다른 비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정보공시자료의 항목이 표준유아교육비 항목과 구성이 달라 비교가 쉽지 않으나 굳이 비교한다면, 인건비 규모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반면 관리운영비나 재무활동비에서 현실비용이 표준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즉 사립유치원은 원마다 지역이나 환경, 상황이 달라 관리운영비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실제비용이 표준교육비보다 6만원 가까이 높아진 결과가 되었을 수 있다.

한편 2012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표준유아교육비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499천원/월, 사립유치원 380천원/월, 그리고 평균 표준유아교육비 406천원/월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2013년 공립은 3만 3천원 정도 비용이 낮아졌고 사립은 4만 6천원이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평균 비용은 1만 1천원이 높아졌다. 이러한 연도별 차이는 산출방식이 달라짐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을 2013년 방식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3학급이하 소규모 유치원은

행정직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원 비용을 책정하지 않았고, 둘째, 2학급 이하 공립유치원은 초등병설유치원으로 간주하여 학교장 외 별도 원장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하지 않았다. 2학급 이하 공립병설유치원이 전체 공립의 48%(2012년 기준 총 8,400개원 중 4,016개원)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본 표준 비용 산출 방식이 공립 인건비를 크게 줄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표준공통운영비는 실제 자료인 정보공시 중 기관 운영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삼아 유치원 규모에 따라 3등급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함으로써 현실을 최대로 반영했다는 점이 기존과 많이 다르다. 운영비는 당해 연도의 물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 만큼 현실을 기준으로 비용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가 기존보다 높게 책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 교육활동비는 기존과 큰 차이는 없으나 누리과정의 3~5세 전체 도입을 감안하여 지도서를 재분석하고 시장물가를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설비비를 제외하면 교구비와 재료비에서 공·사립 간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

교육비 중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정보공시 자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6만원으로 나타나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 6만원만으로 충당됨을 보여주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33만 1천원이 부모부담 비용인데 이 중 국가 지원 22만원을 제외하며 11만1천원이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된다. 공시 자료에 의한 현실 비용이 공립 525천원임을 상기하면, 공립 유아 1인당 비용의 100%를 국가가 부담하고, 사립 유치원 현실 비용 485천원 중 77%인 374천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부모부담은 일일 3~5시간의 기본 교육과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방과후과정, 특성화교육, 급간식 등을 통해 부모부담은 더 가중되는 것이 실제이다.

마지막으로, 비용 논의에 덧붙여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준유아교육비는 국가가 교육비 지원의 기준으로 삼고자하는 목적도 있지만 현실 유치원 교육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 특히 교육비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이 적정 수준의 유치원 교육비를 결정하는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삼아 적정 비용의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홍보와 활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준유아교육비를 일반 공개할 경우 이 비용이 현실만이 아니라 일정 정도 규범적인 의미의 '표준'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임이 함께 설명되어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둘째,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현실 물가 또는 현실 비용 수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사립유치원 적정 교육비의

산출을 위해서는 공통운영비에서 그간 공립 기준으로 적용하던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표준비용 산출 방식은 실험적인 시도로서 현실적 운영경비를 적용한 비용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존 방식과 같이 실제 유아 수를 분모로 하지 않고 표준유치원모형에 의한 표준 유아 수를 분모로 하여 1인당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모형에 의거하는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셋째, 교육비 정보공시자료의 입력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설립유형 간 공통 양식이 되도록 정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비에 대한 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간 통일성이 없고 무성의한 정보 입력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입력 양식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예산서 제시 양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보다 용이하게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공립유치원 중 초등병설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회계에 포함이라는 명목으로 독립된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병설유치원에 적합한 나름의 통일된 양식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본다.